천년을 세우다
모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06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10월 6일) 2024년 11월 6일 수요일

70돌 맞는 중앙신도회 '선명상대회' 추진한다

'2024년도 신도조직 임원연수'
정원주 회장, 과제 발표서 밝혀
교구신도회 등 100여 임원 참석
28대 집행부 사업보고 · 방안 발표
조직정비, 안정적 예산확보 강조

나주=김민재 기자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내년 창립 70주년을 맞아 '선명상대회'를 개최한다. 전국 신도 1만여 명이 함께 하는 대규모 선명상 보급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10월 26~27일 양일간 나주 중흥골드리조트에서 열린 '2024 신도조직 임원연수'에서 "중앙신도회는 다가오는 창립 7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선명상 확산을 위한 '전국 신도대회'를 열 것"이라고 천명했다. 45개의 조계종 신도단체를 이끄는 중앙신도회가 선명상으로 국민 마음 평화를 도모하는 종단의 원력에 힘을 보태기 위함이다.

이번 연수는 중앙신도회 28대 집행부의 출범에 기해 신도조직 간의 유대관계를 개선하고 향후 중앙신도회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임원연수에는 교구 및 사찰신도회와 신도단체, 유관단체 대표자와 임원 및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첫날 '중앙신도회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제28대 집행부 주요사업 보고 및 운영방안 논의가 진행됐다. 정원주 중앙신도회장이 직접 나서 '중앙신도회 미래: 향후 4년의 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중앙신도회 2025년 창립 70주년을 맞아 '선명상 확산을 위한 전국신도대회 및 70주년 기념식'을 내부 회의를 통해 계획·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강조하신 선명상을 보급·확산하기 위해 '전국신도대회'를 개최할 생각"이라며 "중앙신도회 자체 예산으로 전국에서 모인 1만여 명의 불자가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 회장은 중앙인력 확충을 통한 '중앙운영위원회 강화'를 강조했다. 정 회장은 "사찰, 신도단체별로 대의원 숫자가 모호하다"며 "최소, 최대 대의원 수를 명확히 규정해 중앙조직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예산 확보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정 회장은 "중앙 선임직 부회장 수를 현재 20명에서 30~35명까지 늘릴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회비 납부 의무도 강화한다. 3개월 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부회장은 자동 해촉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신도회의 향후 사업 방향도 제시됐다. 특히 정 회장은 "젊은 층 포교에 진력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사찰 경내 어린이·청년 전용 공간을 확보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 회장의 생각이다.

정용식 중앙신도회 특별자문은 '중앙신도회 과거와 현재'를 발표했다. 정 특별자문은 △조계종·중앙신도회 역사 △중앙신도회의 역할과 임무 △중앙신도회의 현재를 발표해 중앙신도회의 역사를 톺아보고 조직·회칙·예산 등 중앙신도회의 현재 상황을 임원들에게 설명했다.

신도 조직 대표자들의 인사와 활동 공유 시간도 이어졌다. 정재호 중앙신도회 부회장은 "작년은 코로나로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회장단이 막중한 책임을 갖고 다시 열심히 일할 생각"이라며 "28대 집행부가 불교사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봉사하고 참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앞서 입재식은 △삼귀의·반야심경 △정원주 중앙신도회장 인사말 △제21교구 본사 송광사 주지 무자 스님 치사 △포교원장 선업 스님 법문 △사홍서원 순으로 이어졌다.

송광사 주지 무자 스님은 치사를 통해 "오늘은 정원식 중앙신도회장과 제28대 집행부의 공식적인 첫 상견례"라며 "다 함께 중앙신도회의 발전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불법 홍포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법상에 올라 '화합'을 강조했다. 스님은 법문에서 "우리는 비워낸 만큼만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여러분이 서로 마음을 열고 함께 한다면 이 땅을 불국정토로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간의 소통 역시 중요하다"고 역설한 선업 스님은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한 가지씩의 장점은 반드시 갖고 있다. 이를 받아들이고 함께 나아간다면 조계종을 넘어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튿날 임원진들은 정원주 중앙신도회장의 재적사찰인 화순 개천사(주지 보원 스님)로 향했다. 개천사 천연기념물 비자나무숲길을 탐방한 임원진들은 '행복바라미 개천사 가을음악회'를 끝으로 임원 연수를 회향했다.



걸음걸음 평화통일 발원을 담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스님)는 10월 30일 강원도 양구군 두타연과 화천 세계 평화의종 공원 일원에서 '남북화해기원 평화명상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민추본 사무총장 덕유 스님은 "명상을 통해 마음 속 평화를 되새기고, 그것이 통일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사진은 두타연 평화누리길에서 평화명상 걷기를 하고 있는 사부대중의 모습. 강원도 양구=김가령 기자 <현장 기사 5면>

종교지도자 "政·堂·醫 책임감 있는 행동을"

종지협, 10월 28일 중재 입장문
교육부 '자율 휴학' 입장 이끌어

의대 정원 증원 등 의정갈등 사태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7대 종교지도자들이 정부와 의료계 중재에 나섰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10월 28일 "더 이상 국민 희생이 없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의정협의체와 관계 당국에 중재적 입장을 건의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종지협은 "종교지도자들은 의사 단체는 물론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정부와 정당, 의사단체들에게 의료대란을 종식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종교지도자들은 △의대생 휴학계 처리 문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의대 정원은 2026년도부터 원점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기 결정된 2025년 의대 입시 정원은 각 대표 단체가 참여한 추계기구를 구성,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종교지도자들은 "오직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국가가 사회 공동체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대승적 화합의 장을 함께 열어 주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종교지도자들의 중재 입장문 발표 이후 교육부는 10월 29일 9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 대해 대학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입장을 "종지협 등 각계 의견을 수용했다"면서 밝혔다. 임은호 기자

본지 임은호 기자, 복지기여자 표창

종로노인복지관, '슈퍼스타종로'
주석 스님 · 이승기 배우 등 수상
전 세대 아우르는 화합의 무대도



본지 임은호 기자(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복지기여자 표창을 수상하고 있다.

임은호 현대불교신문 기자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공로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복지기여자 표창을 수상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스님)은 10월 31일 서울 종로구민회관에서 지역 화합 축제 '2024 슈퍼스타종로-우리가 함께 만드는 오늘'을 개최하고 명경문화재단 이사장 주석 스님, 이승기 배우, 임은호 기자 등 22명에게 복지기여자 표창을 수여했다.

관장 정관 스님은 "수상하신 모든 분 축하드린다. 이번 슈퍼스타종로는 시니어뿐 아니라 종로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로 거듭났다"며 "내년에는 더 풍성한 행사를 기획해 지역 주민들에게 재미있고 행복한 추억을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인사했다.

수상자를 대표해 주석 스님은 "나눔,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어디든 달려가는 게 부처님 제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세상을 맑히고, 지역을 밝히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의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해 힘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무대발표에서는 어르신들이 무대를 꾸몄던 예년과 달리, 올해 행사에서는 어린이·고등학생·대학생·지역민 등 전 세대가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가 펼쳐졌다. 김내영 기자

고불총림연구원 출범 기념 세미나
초대합니다

일시 2024.11.12. (화) 오후 1시 ~ 5시
장소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 고불총림연구원

[대주제]
고불총림의 재조명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 문의(종무소) 061.392.7502

◉ 식순 좌장 : 미산스님(상도선원 회주)

시 간	내 용
13:00-13:20	개회 및 인사말 삼귀의 인사말씀 무공스님 (백양사 주지) 치사 진우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13:20-14:00	주제 발표 주제1 고불총림의 성격과 위상 한상길 (동국대), 김상영 (중앙승가대)
14:00-14:40	주제2 고불총림과 백학명, 용성의 선농일치 이재수 (동국대), 김순석 (국학진흥원)
14:40-15:20	주제3 고불총림의 계승과 서옹대종사 금강스님 (고불총림연구원 원장), 정운스님 (대승불전연구소)
15:20-15:30	휴식
15:30-16:10	주제4 고불총림과 가야총림 김방룡 (충남대), 고영섭 (동국대)
16:10-16:50	주제5 고불총림과 봉암사결사 비교 김광식 (대각사상연구원), 서재영 (성철선사상연구원)
16:50-17:00	폐회사 무공스님 (백양사 주지)